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도 분석

박 한 숙[†]
(부산교육대학교)

An Analysis on High School Teacher's Stages of Concern on 'Creative-Experience Activity' in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Han-Sook PARK[†]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high school teachers' stage of concern(SoC) on 'Creative-Experience Activity' in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investigate the improvements of their level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34 high school teachers through out all part of the Korea country.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Hall & Hord(2006)'s stage of concerns questionnaire of Stage of Concern.

The Data were analyzed by Profiling of teachers' concern and one-way ANOV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85.25% of the high school teachers were in stage of Awareness. 6.34% of teachers were in stage of Information. Most of high school teachers' concern about 'Creative-Experience Activity' was generally 'non-user' stage that unconcerned.

Second,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ers' stage of concern according to their sex and teaching career except for region. In region, the teacher in metropolis tent to interest getting new information than small and midium size city.

We need to make an effort to transfer from 'non-user' stage to 'early-user' stage of and 'impact' stage. To do so, we may sublate too much curriculum revise and start teacher training for 2009 revised 'creativity-experience activity' curriculum.

The result of the study provide that there are not curriculum implementation success without teachers' concern about revised curriculum.

Key words: Creative-experience activity, Stage of concern, 2009 revised curriculum

I. 서 론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전 차시 교육과정에서의 특

별활동과 재량활동을 묶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명칭으로 만든 것이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되어 2011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1,2학

[†] Corresponding author : 051-500-7274 parkhansook@hanmail.net

*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거쳐 2013년에 모든 학교 급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올해 2013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시되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 비해 매우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Lee, K. W., & Lee, M. S., 2012).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함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의 한 방편으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묶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개편하였으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을 실천하도록 주요 취지가 설정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Lee, K. W., & Oh, E. S. (2012)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오랫동안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되기 보다는 오히려 창의성 교육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교과외 활동에서 창의성을 강조해서 공포한 것이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과 달리 영역을 4개 영역으로 변화시키고 진로활동을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시켜 학생들이 지식과 성적 중심으로 지도되기 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자율적으로 에듀팟(www.edupot.go.kr)에 접속하여 자신의 활동 내용을 입력하고 이것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등 기존의 특별활동 운영과는 매우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서상에서 아무리 창의성을 강조하고 또 새로운 교육의 운영이나 방식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 교사들에게 침투되지 않는

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다(Hall & Hord(2011)). 즉 교과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상을 가지고 공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 이전에 개발된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의도를 살려 수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Hall & Hord, 2011; Kim, E. J. et. al., 2010). 특히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이전 교육과정보다 확대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관심 정도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착 정도, 전개 방향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CBAM(Concerns based adoption model) 모형에 의거하여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09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도 프로파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고등학교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성별, 경력별,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관심중심 수용 모형(Concern-Based Adoption Model: CBAM)

CBAM은 1960년대 Fuller의 예비교사들의 관심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Hall, Hord, Loucks, Rutherford, George, Huling-Austin 등에 의하여 발전되고 확립된 교육과정 실행 모형이다(George, et. al., 2006; Kim, H. N. et. al., 2010).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교직 생활과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감정과 반응 혹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교사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갖는 감정, 태도, 사고 등과 같은 반응을 ‘관심’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심의 성격은 그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이 교사들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George, et, al., 2006). 이미 오래전에 Fuller(1969)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러한 교사의 관심이 현장 교육과정 실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으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all, George 및 Rutherford(1979)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관해 교사들의 관심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것이 교육과정 실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실천 정도가 달라지며, 이것을 파악하여 알맞은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교육과정 개혁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 CBAM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가장 최근에 텍사스 대학교(Uni. of Texas at Austin) 교사교육연구소(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eacher Education)에서 2006년 이전 매뉴얼에다가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관심도 단계를 설정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개정판은 초판에 비하여 조직의 환경과 문화 등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사례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문항의 내용들도 다소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문항 번호 3번의 경우 2006년 이전에는 ‘나는 혁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에서 2006년 개정판에서는 ‘나는 다른 혁신에 더 관심이 있다’로, 문항 번호 12번 ‘나는 이 혁신에 관심이 없다’에서 ‘나는 지금은 혁신에 관심이 없다’로, 문항 번호 21번 ‘나는 다른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에서 ‘나는 이 혁신이 아닌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로, 문항 번호 23번 ‘내가 이 혁신에 대해 모르지만 다른 것들에는 관심이 있다’에서 ‘나는 혁신에 대해 생각하는 데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로, 문항 번호 30번 ‘지금은 혁신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이 없다’에서 ‘현재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혁신에 집중하기 어렵다’ 등으로 문항 진술이 개선되었다(George, et, al., 2006; Kim, H. N., 2011).

본 연구는 개정된 새 매뉴얼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단계와 관심의 정의는 <Table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1> The Stage of Concern About an Innovation

Stage of Concern			Contents of Concern
Impact	6	Refocusing	The individual focuses on exploring ways to reap more universal benefits from the innovation, innov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major changes to it or replacing it with a more powerful alternative.
	5	Collaboration	The individual focuses on coordinating and cooperating with others regarding use of the innovation.
	4	Consequence	The individual focuses on the innovation's impact on students in his or her immediate sphere of influence. Consideration include the relevance of the innovation for students; the evaluation of student outcomes; and the changes needed to improve student outcomes.
Task	3	Management	The individual focuses on processes and tasks of using the innovation and the best use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Issues related to efficiency, organizing, managing, and scheduling dominate.
Self	2	Personal	The individual is uncertain about the demands of the innovation, his or her adequacy to meet those demand, and/or his or her relationship to the reward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determining his or her part in decision making, and considering potential conflicts with existing structures or personal commitment. Concerns also might involve the financial or status implications of the program for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colleagues.

1	Informational	The individual indicates a general awareness of the innovation and interest in learning more details about it. The individual does not seem to be worried about himself or herself in relation to the substantive aspects of the innovation, such as its general characteristics, effects, and requirements for use.
0	Awareness	The individual indicates little concern about or involvement with the innovation.

George, A. A., Hall, G. E., & Stiegelbauer, S. M.(2006). Measuring implementation in schools: the 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 Austin, TX: SEDL., 8.

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교사의 관심도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물론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시간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성격과 특성을 표방하며 학교 현장을 이전의 지식 중심, 암기 중심에서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즉 2009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특별활동, 재량활동과 달리 현장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알아보고 향후 어떠한 처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과정 성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CBAM에 관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Kim, G. J.(1993)에 의해서이다. 그 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CBAM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물은 Lee, Y. W.(2005)의 창의적 재량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연구한 연구물과 Park, H. S.(2011)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 수준을 분석한 연구물이 전부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과 외 활동과 관련된 CBAM 연구물의 수가 매우 적으므로 좀 더 범위를 넓혀 교과 교육과정이나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국내외 교사들의 관심도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Rutherford(1977)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도 측정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육과정 혁신 적용에 있어 교사들의 관심도를 프로파일로 그려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 단계가 높을수록 새로운 도입된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용하여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Darr(1985)에 의하면 중단연구를 통한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심 단계를 조사한 결과 0, 1, 2단계 60.4%, 3단계 5.4%, 4,5,6단계 20.8%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주로 정보적, 개인적, 결과적 단계의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Marsh와 Willis(1999)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수행 방식에 대해 조사하면서 80% 이상의 교사들이 주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정령시키거나 재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실행한다고 하면서 그 주된 이유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hristou와 그의 동료들(2004)은 사이프러스 지역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의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5년 미만 초임 교사의 경우에는 운영적 관심 수준에 머물면서 개인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경력이 높은 교사들은 결과적 관심 수준에 많이 머물러 경력이 높을수록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교사들의 관심 정도가 교육과정 성공적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교직 경력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관심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행

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를 조기에 파악하여 교직 경력에 따라 혹은 교사들의 관심 수준에 따라 적절한 처방, 연수,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CBAM과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ee, D. Y. et. al. (2010)은 특별 보충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관심도를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무관심(0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이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실행되기 보다는 정책 입안자의 상명 하달식 요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결과로 보고 교사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E. J. et. al.(2010)은 2007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의 통합단원 실행에 관한 교사들의 관심도를 분석하였는데 77%의 교사가 0단계와 1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 때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 문제, 교사들의 연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 교육과정 자체에 관심이 낮은 교사들의 문제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Kim, S. W. et. al.(2011)는 중학교 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관심도와 실행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운영적 관심(3단계)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1단계 정보적 관심이 가장 적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비해서 높은 관심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원인을 연구자들은 수행평가를 실시한 기간이 충분하여 교사들이 업무적으로 능숙해지고 동료 교사들과 업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와 같은 관심도가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교사들은 이미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CBAM은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개정이나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 그것이 교사들에

게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Hall & Hord, 2011). 즉 관심도 파악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관심이 낮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보완책과 성공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지역과 경력을 고려하여 전국을 대도시(수도권과 광역도시 내의 5개교), 중소도시(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6개교), 읍면지역(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7개교)로 나누고,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지역마다 6-8개의 고등학교를 추천받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였다. 2009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경력별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력을 0-5년, 6-10년, 11-20년, 21년 이상으로 나누고 모두 30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전체 300부 가운데 248부를 회수하였으며 이는 약 82.7%의 회수율이다. 이 가운데 설문 문항에 표시가 없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14부를 제외한 234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Sampling Target of Study

(N= 234)

Individual Background Variable	Division	N
Sex	Man	107
	Female	127
Career	0-5 Years	45
	6-10 Years	58
	11-20 Years	63
	More than 21 Years	68
Region	Metropolitan	87
	Small and Medium Size City	76
	Rural Community	71
SUM		234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심단계 설문지(SoCQ; Stage of Concern Questionnaire)는 George, Hall & Steigelbauer(2006)의 관심단계설문지 총 35개 문항을 우리 현장 교육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들의 관심도 설문지’이다. 본 설문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수준을 지각적, 정보적, 개인적, 운영적, 결과적, 협동적, 강화적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별로 5개의 문항씩 구성되어 모두 3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응답 방법은 ‘지금 자신의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8단계 리커트 척도에 $\checkmark$ 표 하도

록 하였다. SoCQ의 각 단계별 알파계수(Chronbach α)의 범위는 .63에서 .79이며, 전체 문항의 α 계수는 .94이다.

본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교육과정 전공 교수 1인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7년의 고등학교 현장 경력을 가진 교사 1인과 함께 문항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1차 수정을 한 후, 교직경력 5년차 중등학교 교사 2명, 교직경력 10년차 중등학교 교사 2명, 교직경력 20년차 중등학교 교사 1명, 모두 5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수정을 하였다. 수준별 문항 수 및 관련 문항 번호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Item Number of Levels on Concern Questionnaire for Teachers

Stage	Item	Volume of Item	Item Number	Chronbach α
6 Stage(Refocusing)		5	2, 9, 20, 22, 31	.71
5 Stage(Collaboration)		5	5, 10, 18, 27, 29	.68
4 Stage(Consequence)		5	1, 11, 19, 24, 32	.63
3 Stage(Management)		5	4, 8, 16, 25, 34	.72
2 Stage(Personal)		5	7, 13, 17, 28, 33	.79
1 Stage(Informational)		5	6, 14, 15, 26, 35	.69
0 Stage(Awareness)		5	3, 12, 21, 23, 30	.74
SUM		35		.94

3. 자료 처리

본 설문지에 의해 획득된 각 단계별 문항의 원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텍사스 대학교 교사교육연구소에서 George와 그의 동료들(2006)이 개발한 ‘관심도 설문지 단계별 백분율 환산표’를 바탕으로 환산하여 관심도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각 교사별로 7단계의 관심 단계 중 백분위 점수(상대적 강도)가 가장 높은 단계를 그 교사가 현행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 단계로 간주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단계에서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경우 높은 단계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단계로 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교사들의 전반

적인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고등학교 교사들의 단계별 상대적 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평균 점수를 변환표에 의거 변환점수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로 그려 분석하였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개인별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단계별 강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빈도와 %를 구하였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교 교사의 성별, 경력별, 지역별 학교 규모에 따라 관심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F 검증(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평균간 차이가 있을 경우 Duncan 사후검증법에 의해 평균간 개별비교를 하였다.

<Table 4> The Stages of Concern of High School Teachers on ‘Creative-Experience Activity’

Division	N	M	SD	Transformed Value
0 Stage(Awareness)	234	12.78	5.89	89
1 Stage(Informational)	234	24.13	4.76	88
2 Stage(Personal)	234	25.20	5.22	85
3 Stage(Management)	234	22.23	5.32	83
4 Stage(Consequence)	234	26.48	5.05	59
5 Stage(Collaboration)	234	26.65	4.96	76
6 Stage(Refocusing)	234	23.22	5.09	77

[Fig. 1] High School Teacher's Profile on ‘Creative-Experience Activity’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고등학교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 수준

Hall과 Hord(2011)에 따르면 관심도의 프로파일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관심 정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각 관심도 단계에 있어서 수치보다는 전체 관심도 프로파일을 보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우선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전체적인 관심도 프로파일 형태를 보면 0단계(지각적 관심)에서 시작하여 점점 낮아지다가 5, 6단계에 가서 ‘꼬리 올리기(tailing up)’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창의적 체험활동

동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 수준은 주로 지각적, 정보적 관심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단계와 1단계에서의 관심 수준이 다른 단계의 관심 수준보다 높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무관심한 ‘비사용자’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일반적인 특성, 효과 및 필요조건 등과 같은 실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나 그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심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기는 수준이다. 이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된 지 3년째이며 2013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

있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2009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에 관심이 없거나(지각적 관심 수준) 관심이 낮게 나왔을지라도 5, 6단계에서 ‘꼬리 올리기’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동료 및 전문가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의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이외에 다른 대안에 더욱 관심이 있거나 기존의 학교 교육 틀 안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개별 관심도를 <Table 5>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Table 5> Frequency of Highest Concerns Stage on ‘Creative-Experience Activity’

Stage	0	1	2	3	4	5	6	N
Number of Teacher	199	15	7	5	3	3	2	234
%	85.25	6.34	2.78	2.17	1.13	1.30	1.03	100

<Table 5>는 각 고등학교 교사들이 갖고 있는 단계별 강도 중 가장 높은 관심단계의 빈도를 그 교사의 관심단계로 보고 단계별로 빈도수를 조사한 것이다. <Table 5>에서 보면 지각적 관심 단계(무관심)에 있는 교사가 199명(85.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적 관심 수준에 있는 교사가 15명(6.34%)로 나타났다. 반면 그 나머지 관심 수준의 양을 모두 합쳐도 8.41% 밖에 되지

않는다.

2. 성별에 따른 관심수준 차이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의 경력에 따라 관심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Stages of Concern of High School Teachers according to Sex

Division	Sex	N	M	SD	Transformed Value	F	p
Awareness	M	107	12.65	5.67	89	1.55	.22
	F	127	13.43	6.28	89		
Informational	M	107	18.68	4.62	69	2.19	.41
	F	127	19.08	4.87	69		
Personal	M	107	28.04	5.41	91	1.98	.16
	F	127	27.18	4.71	89		
Management	M	107	22.13	4.79	83	.08	.78
	F	127	21.43	5.37	80		
Consequence	M	107	25.68	5.12	59	3.61	.09
	F	127	27.16	4.41	63		
Collaboration	M	107	26.29	4.96	72	1.26	.26
	F	127	27.41	4.95	76		
Refocusing	M	107	22.99	5.30	77	.49	.48
	F	127	23.70	4.65	81		

<Table 6>에서 보면 성별에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 변환점수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Fig. 2]에서 프로파일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도는 최고점과 최저점 및 관심도 프로파일의 형태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남교사는 개인적 관심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여교사들은 지각적 관심과 개인적 관심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해석상으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High School Teacher's Profile according to Sex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1단계(지각적 관심)와 2단계(개인적 관심)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남교사나 여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은 상태의 관심 수준이다.

남교사나 여교사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결과적 관심 수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낮다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심이 적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교사가 이번에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가지는 타당성(relevancy), 학생 수행 가능성, 학생 평가 등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5, 6단계에 가서는 ‘꼬리 올리기(tailing up)’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동료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며, 교육 혁신과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기존의 학교 교육 틀 안

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는 것은 교육 개혁에 대한 일종의 ‘저항감’으로 볼 수 있다. 이 저항감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반발로 그것을 전면거부하기 보다는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므로 교육과정 개혁에 있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Hall & Hord, 2011).

3. 경력에 따른 고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관심수준 차이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의 경력에 따라 관심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면 경력 0-5년의 교사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경력 6-10년의 교사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프로파일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면, 모든 경력에서 0단계(지각적 관심)에서 3단계(운영적 관

<Table 7> The Stages of Concern of High School Teachers according to Career

Division	Career	N	M	SD	Transformed Value	F	p
Awareness	0-5 Years	45	13.33	3.67	89	.52	.67
	6-10 Years	58	13.37	4.47	89		
	11-20 Years	63	12.07	4.01	86		
	Over 21 Years	68	12.36	4.63	86		
Informational	0-5 Years	45	21.33	4.46	75	1.71	.17
	6-10 Years	58	23.72	4.05	88		
	11-20 Years	63	24.59	6.10	90		
	Over 21 Years	68	25.53	4.48	91		
Personal	0-5 Years	45	23.17	6.37	80	.70	.55
	6-10 Years	58	26.13	4.05	87		
	11-20 Years	63	24.41	6.10	83		
	Over 21 Years	68	25.55	4.91	87		
Management	0-5 Years	45	19.50	3.02	77	2.17	.09
	6-10 Years	58	25.63	3.26	92		
	11-20 Years	63	21.07	6.54	80		
	Over 21 Years	68	22.50	5.04	85		
Consequence	0-5 Years	45	24.67	4.93	54	.36	.78
	6-10 Years	58	27.50	3.78	66		
	11-20 Years	63	26.44	5.12	59		
	Over 21 Years	68	26.53	5.19	63		
Collaboration	0-5 Years	45	24.00	6.51	64	.73	.54
	6-10 Years	58	25.88	5.14	72		
	11-20 Years	63	26.63	5.55	76		
	Over 21 Years	68	26.95	4.80	76		
Refocusing	0-5 Years	45	21.17	5.15	69	.47	.70
	6-10 Years	58	22.75	4.94	77		
	11-20 Years	63	22.92	6.04	77		
	Over 21 Years	68	23.54	5.77	81		

심) 수준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4단계(결과적 관심)에서부터 급속하게 떨어져서 5단계(협동적 관심)와 6단계(강화적 관심)에 이르러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결과와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며 나타나는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교사들 전체적인 관심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현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조화와 협력을 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경력에 따른 고등학교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에서 경력이 낮은 교사(0-5년)들의 관심도

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경력이 있는 교사들 보다 초임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이 다소 더 높은 결과로 판단된다. 그것은 초임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어 0단계(지각적 관심)와 1단계(정보적 관심)가 가장 높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임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은 일반적 관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낮은 관심수준은 마지막 단계까지 일관되게 이어진다.

4. 지역에 따른 관심수준의 차이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지역에 따른 관심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

<Table 8> The Stages of Concern of High School Teachers according to Region

Division	Region	N	M	SD	Transformed Value	F	p
Awareness	Metropolis	87	10.31	4.93	84	3.54	.03*
	Middle Size City	76	13.08	5.13	89		
	Small Size City	71	13.48	6.26	89		
Informational	Metropolis	87	25.81	4.72	91	.67	.51
	Middle Size City	76	24.70	5.16	90		
	Small Size City	71	24.79	5.44	90		
Personal	Metropolis	87	26.64	5.58	89	2.65	.08
	Middle Size City	76	24.20	4.86	83		
	Small Size City	71	24.58	4.94	85		
Management	Metropolis	87	22.05	5.21	83	.05	.95
	Middle Size City	76	23.43	6.23	85		
	Small Size City	71	22.21	5.59	83		
Consequence	Metropolis	87	27.29	4.84	63	.89	.41
	Middle Size City	76	26.18	4.78	59		
	Small Size City	71	25.82	5.60	59		
Collaboration	Metropolis	87	27.95	4.78	80	2.47	.09
	Middle Size City	76	26.18	4.97	72		
	Small Size City	71	25.58	4.96	72		
Refocusing	Metropolis	87	24.60	4.70	84	2.53	.08
	Middle Size City	76	22.57	5.40	77		
	Small Size City	71	23.24	4.96	77		

* $p < .05$

[Fig. 3] High School Teacher' s Profile according to Career

<Table 9>에서 보면 고등학교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0단계(지각적 관심)이다. 특히 중소도시의 고등학교 교사들 혹은 읍면지역

의 고등학교 교사들 보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낮은 지각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도시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1단계(지각적 관심), 2단계(정보적 관심)에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교사들 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4단계(결과적 관심), 5단계(협동적 관심), 6단계(강화적 관심)에서 중소도시 교사들이나 읍면지역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대도시 교사들이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대도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현장에 정착시키려는 관심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Duncan의 사후검증법에 의한 평균간 개별비교를 하면 <Table 9>와 같다.

<Table 9> Post analysis on Awareness Level According to Region by Dunca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Career)	Metropolis	Middle Size City	Small Size City
0 Level	Metropolis		*	*
	Middle Size City	*		
	Small Size City	*

[Fig. 4] The Profile of Concern Stage according to Region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실행 정도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시행단계에 접어든 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을 대도시(수도권과 광역도시 내의 5개교), 중소도시(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6개교), 읍면지역(영남권, 제주권, 충

청권 7개교)로 나누고,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지역마다 6-8개의 고등학교를 추천받아 모두 18개교 234명을 대상으로 관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관심도 7단계 가운데 85.25%가 가장 낮은 지각적(0단계) 수준에 있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수준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교사는 개인적 관심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여교사들은 지각적 관심과 개인적 관심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해석상으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경력에 따른 고등학교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프로파일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면, 모든 경력에서 0단계(지각적 관심)에서 3단계(운영적 관심) 수준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4단계(결과적 관심)에서부터 급속하게 떨어져서 5단계(협동적 관심)와 6단계(강화적 관심)에 이르러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 수준이 낮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실현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조화와 협력을 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0단계(지각적 관심)이다. 특히 중소도시의 고등학교 교사들 혹은 읍면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들 보다 대도시 고등학교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낮 각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도시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1단계(지각적 관심), 2단계(정보적 관심)에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교사들 보다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4단계(결과적 관심), 5단계(협동적 관심), 6단계(강화적 관심)에서 중소도시 교사들이나 읍면지역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각적 관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교사들의 비율이 85.25%로 나타났다는 점과 전체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 수준이 지각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관심이 낮다는

사실은 성별, 경력별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렇듯이, 창의적 체험활동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 지고(Han, C. H., 2012)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 특별활동, 재량활동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성급하게 개정 공포된 이유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혼란과 무관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어 그 정체성에 대한 신뢰와 이해의 뿌리를 두기 어려웠다. 심지어 교육과정을 ‘보도블록보다 자주 바꾼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이다(한국일보 인터넷판, 2011년 4월 27일자). 이것은 교사들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관심도를 낮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홍보와 연수의 부족이다. 2009년 12월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으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교사들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 관심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Kim, E. J., et al., 2010; Kim, M. H., 2009; Kim, H. N., 2011; Yang, M. Y., et al., 2013 등)은 교육과정 개혁 초기에는 교사들의 관심도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주로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009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공포 된지 5년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서 시행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들의 관심수준이 낮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Hall & Hord, 2011).

셋째, 현실과 동떨어진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은 입시중심의 수업

에서 별로 변화가 없는데 교육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활동을 늘리기를 요구하고 있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09). 특히 에듀팟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학생과 교사가 수시로 활동 내용을 입력하고 교사가 승인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입시 교육에 시달리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현장 개선을 통한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을 바꾸기 위한 여러 측면에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학부모, 전문가, 교사 등으로부터 나타날 때 비로소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과 2009 교육과정처럼 정권이 바뀌자 말자 다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혁 피로증만 높일 뿐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연구위원들 의견 수렴 회의를 한 차례 밖에 하지 않았으며, 이전까지 특별활동을 강의해 왔던 대부분의 대학교 교수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의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연구위원들 모임을 다시 열지 않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문서 작성에서도 참여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교수들은 없다. 이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현장 실천가나 연구가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이다.

둘째,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한 홍보와 연수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연수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용 뿐 아니라 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정당성도 함께 납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교육

예산을 보면 교육과정 개혁을 한 해 예산이나 하지 않은 해의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다(한춘희, 2012). 한 번 교육과정 개혁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이나 유럽 쪽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문서상의 개혁에 치중해 왔고 교사나 학부모 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왔다. 이러한 것은 교육과정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이원화이다. 즉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한 문서로 되어 있다. 이것을 최소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분리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이원화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자율 활동(적응 활동, 자치 활동, 행사 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중등학교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각 영역별 내용도 수준을 달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4개 영역으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영역은 7개 영역으로 되어있는 바, 이것을 과감하게 3-4개 영역으로 통합하여 현장 교사들의 운영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교사들의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Kim, M. H.(2009). An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s' concern levels o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9(3), 87~107.
- Kim, E. J. • Yang, M. Y. & Kim, D. Y.(2010). An analysis on elementary teachers' stage of concern to integrated units of revised integrated curriculum,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2(2), 287~302.
- Kim, H. N. & Kim, D. H.(2010). The characteristic of theses and dissertation related to levels of use of CBAM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4(2), 1~22.

- Kim, H. N.(2011). The Development and Issues of Three Diagnostic Dimensions of CBAM. the master theses, B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S. W. · Lee, D. Y. & Kang, Y. I.(2011). Analysis of teachers' concern and levels of use on performance assessment in middle school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4(1), 31~50.
- Yang, M. Y. · Kim, H. N. · Kim, E. J. & Kim, D. Y.(2013). An analysis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cern and implementation of difference instruction of mathematic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25(2), 321~340.
- Lee, K. & Lee, M. S.(2012). An anlysis of the survey on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creative-experienti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5(2), 187~211.
- Lee, K. W. & Oh, E. S.(201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urriculum for cultivation students' creativity in secondary school. *The Journal of Integrated Curriculum.*, 6(1), 45~68.
- Lee, D. Y. · Kim, S. W. & Kim, K. S.(2010). Analysis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cern of special supplementary clas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1(2), SNUE, 197~212.
- Lee, Y. W.(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Based on The Teachers' Concern Regarding The Cross Curriculum.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Han, C. H.(2012). A critical review of the revised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2011. *Socail Studies Education*, 51(3). 55~71.
- Christou, C. · Eliophitou-Menon, M. & Philippou, G. (2004). Teacher's concerns regarding the adoption of a new mathematics curriculum: An application of CBAM,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57(2), 157~177.
- Darr, A. D.(1985).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a new curriculum by classroom teachers. Paper presentation at annual meeting of western Educational Research. Chicago; IL. (ERIC Document ED 267 514).
- Fuller, F. F.(1969). Concerns of teachers: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6(2), 207~226.
- Hall, G. E. · George, A. A. & Rutherford, W. L.(1979). Measuring stage of concern about the innovation: A manual for the use of the SoC questionnaire. Austin, TX: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eacher Educ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all, G. E. & Hord, S. M.(2011). Implementing change: Patterns, principles and potholes(3rd ed.). Boston, MA: Pearson.
- Hord, S.M. · Rutherford, W.L. · Austin, L.H. & Hall, G.E.(1987). Taking charge of change,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김경자 역(1993). 교육과정 혁신. 서울: 교육과학사.
- George, A. A. · Hall, G. E. & Stiegelbauer, S. M.(2006). Measuring implementation in schools: the 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 Austin, TX: SEDL.
- Marsh, C. J. & Willis, G.(1999). Curriculum: Alternative approaches, ongoing issues(2nd ed.). London: Prentice-Hall.
- Rutherford, W. L.(1977). An investigation of how teacher's concerns. influence innovation adoption. Procedures for adopting educational innovation project. Austin, TX: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eacher Educ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ERIC Document ED 251 426).
-
- 논문접수일 : 2013년 07월 0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8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15일